

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

(히4:14-16)

서론: 히브리서 4장 전체는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.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이 있으며,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(히4:12-13). 말씀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 넘어지거나, 실수하거나, 죄를 짓더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. 우리의 참된 안식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어집니다. 이 땅에 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지만, 단 한 사람도 하늘로 승천하신 대제사장은 없습니다.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,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.

1.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

- 가.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,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(히9:12).
- 나.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(히9:28).
- 다.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완전함을 알고 거기에 매달려 확신 가운데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.

2. 이루신 일

- 가.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치유하시며,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,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.
- 나.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.
- 다.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살 수 있기에 오늘 은혜받는 자리에 나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.
- 라.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.

결론: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,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.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, 생명의 역사들을 아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의 역사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. 이번 한 주간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, 그 안에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을 붙잡고 그에 굳게 믿는 도리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